

공연평과 연극론의 두갈래 평론묵음

김문환 지음 「인식과 초월」 「연극평론의 기초」

한상철

한림대 영문과 교수·연극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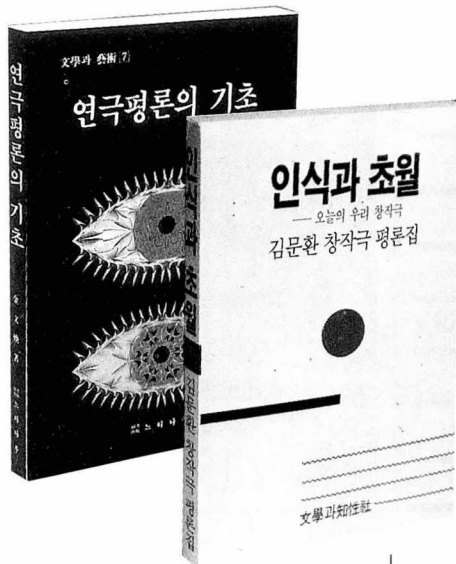
한국의 연극평론은 70년대에 들어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도 연극평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령 60년대 오화섭 여석기 두분의 공연평이 일간신문에 게재되기 시작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 신문 공연평이 전문화의 단계로 진입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평론가의 수나 평론의 질 양 양면에서 본격적인 평론의 시대를 열만한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70년대로 접어들면서 그 양상은 전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우선 대학에서 어떤 형태든 연극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젊은 평론가들이 대거 등장하였으며 평론 지면도 신문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잡지로 확장되었고 특히 연극 전문잡지들이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이전까지는 겨우 공연평이나 연극 시평 정도에 그치던 연극평론이 연극론, 연극사, 연출·연기론 등 연극 전문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로 확대되었다. 연극의 평단이 형성되고 연극을 문학 음악 미술 등과 동등한 예술 장르로 격상시킨 70년대는 우리나라 연극평론의 황금기였다.

김문환은 이때 등장한 젊은 평론가의 한 사람이었다. 69년 서울신문사의 「서울문예」가 공모한 연극평론분야에서 「우리 민족극의 전통 계승 문제」로 당선된 후 오늘날까지 약 20여년간 연극평론가로 활동하는 동안 수많은 글을 써왔다. 위의 두 평론집은 이 글들의 모음인데 70년대 중반 독일로 유학을 갔다가 83년 귀국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써온 주로 80년대 후반의 평론들이다.

창작극 공연평 주로 모은 「인식과 초월」

평론가들의 글 모음 형태의 책은 하나의 주제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서 일관성이 없고 잡다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상례이다. 책으로 모아지지 않으면 글이 일실되기 쉽고, 한편 흩어진 글들을 독자가 일일이 찾아보아야 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글 모음의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책의 체계상의 문제점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김문환처럼 지적 관심과 호기심의 폭이 넓은 사람의 글 모음은 주제의 체계적인 일관성이나 깊이있는 연구서로서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의 두 책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필자 나름으로 성격이 비슷하거나 관심하는 범위를 한정시킨 글들을 모았으며 각 단위의 글들의 상호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그 자체로서



독립된 글들을 모았기 때문에 책 전체로 읽어도 되고 흥미가 있는 단위의 글만 선택적으로 읽어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다.

「인식과 초월」은 ‘오늘의 우리 창작극’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다시말해 이 부제에 합당한 글 모음이라 하겠다. 주로 공연평이고 작가론이 일부를 차지했다. 공연평은 다시 세분하여 대한민국(서울)연극제를 종합해서 평한 글들로 1부를 삼고, 2부는 필자가 문제작으로 평가한 공연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들이며, 3부는 10배 내외의 단평들을 어떤 하나의 주제하에 묶어놓은 것이다. 여기에 서울올림픽의 연극적 행사들에 대한 행사참여자로써의 행사에 대한 분석 평가의 글이 끼어 있고 그의 평론 현상공모 당선작이 「망나니」에 대한 작품론의 형식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는 연극평론을 포함하여 모든 평론은 기술 해석 평가의 과정을 총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러한 규정을 공연평에 적용하려 하였으며 그와 같은 평론의 규정은 또하나의 평론집 「연극평론의 기초」에서 상술되고 있다. 그의 공연평의 또하나의 특징은 무대상의 공연을 평할 때 가능한 한 그것의 기본이 된 대본을 읽고 프로그램을 참고하고 있는 점이다. 공연 작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온당한 해석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일이라 생각되며 평자로서의 성실성과 정직함을 보이려는 노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데 「연극평론의 기초」에서 그는 문학으로서의 희곡 대본과 무대에서 상연된 연극은 별개의 예술이라고 태어되어 상크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했고 대본과 공연의 관계에

김문환은 연극평론을

포함하여 모든 평론은

기술·해석·평가의 과정을

총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러한 규정을 공연평에

적용하려 한다. 그의 공연평의

또하나의 특징은 무대상의

공연을 평할 때 가능한 한

그것의 대본과 프로그램을

읽고 참고하고 있는 점이다.

대한 상론은 하지 않고 있다. 「연극평론의 기초」에서 보다 깊이있게 다루어졌으면 좋았을 부분이 이 부분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연극평론가에게 가장 델리케이트한 문제의 하나가 문학과 연극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연극평론을 위한 기초적인 독서와 지식

「인식과 초월」에 실린 공연평들은 주로 극의 내용에 초점이 가해지고 있으며 무대화의 주역들, 연출이나 연기 그리고 기타 소위 뒷스텝들의 공헌에 대해서는 주의가 덜 가해지고 있다. 그가 지적한 대로 연극과 사회, 연극과 정치, 연극과 윤리에 대한 관점이 그로서는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것이다. 1987년 6·29를 전후하여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일대 격변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자의 정치·사회적 관심이 유독 강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러한 관점은 무엇보다 문학으로서의 희곡이나 연출가의 의식과 집적 관련되지만 한 공연의 평가는 미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가 거듭 주장하듯이 예술 작품에서 형식과 내용은 분리될 수 없고 분리해서 생각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문학과 연극이 그동안 지나치게 도덕적 판단과 평가에만 치중해온 반면 형식과 기교에 대한 비평은 부족했음을 아울러 지적하고 싶다.

「연극평론의 기초」는 “연극평론을 지망하는 학도들에게 연극평론을 제대로 써보자면 도대체 어떤 기초적인 독서와 지식이 필요할까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엮였

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이 글 모음의 특징이라면 저자 말대로 “함께 생각해보자”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신념이나 의견을 개진하지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글이 특정한 주제에 대한 외국인의 저서를 놓고 그것을 소개하고 나서 자신의 견해를 후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의 독서량은 광범위하고 독해력도 풍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글들은 “연극평론을 지망하는 학도들”에게는 너무 전문적이거나 까다롭지 않나 생각된다. 가령 「기호학적 체계로서의 연극」 같은 글은 연극학도에게 매우 중요한 지식을 일깨우는 글이지만 그가 현재 번역하고 있는 마틴 에슬린(때로 독일식 발음이 마르틴으로 표기되고 있다)의 「드라마의 발」을 먼저 읽도록 권하는 것이 쉽게 이해를 돕는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에슬린의 책은 풍부한 실례를 들어가며 일종의 경험에서 축적된 지식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문환의 「연극평론의 기초」가 과연 ‘기초’로서 적합한 책인가 하는 문제는 그 속에 경험과 실례가 얼마나 저장되어 있느냐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사실은 이 책이 그러한 주제에 대한 본격적인 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자에게 그러한 주제와 관계가 있다고 고려된 글들을 한데 묶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주문은 의미없는 일일 것이다.

이 책은 4부 1부록으로 이루어졌다. 제1부는 문제제기의 글이고 제2부는 평론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 속하는 분야들에 관한 설명의 글이며 제3부와 제4부는 연극평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희박한 듯한 연극교육 내지 정책들에 관한 글들이며 마지막으로 예술 전반에 걸친 비평의 미학적 의미를 정리한 저자의 논문이 실려 있다.

연극평론을 해보고 싶은 사람은 많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주저하는 이들을 위한 진정한 안내자,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연극평론의 기초」는 그런 책은 아니다. 그러나 한번 살펴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 적어도 평론가에게 지적 지평은 넓혀 줄 것이기 때문이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부 끝마다 배치해놓은 좌담을 먼저 읽기를 권한다. 평론에 대한 흥미를 일으켜줄 것이다.

「인식과 초월」(문학과지성사/A5신/418면/6000원) 「연극평론의 기초」(너티나무/A5신/384면/7000원)